

삼성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6 January _ Vol.156



Contents

COVER STORY

새해의 시작,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것을 채워가는 吐故納新으로!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다산 정약옹은 아들에게 보낸 새해 편지에서 “군자는 새해를 맞이하면 반드시 그 마음과 행동을
한 번 새롭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정KPMG도 고객의 눈부신 성장을 위한 새 목표와 희망을 다짐합니다. 지난해 아쉬운 점은 털어내고,
다시금 새롭고 좋은 것을 채워가는 토고납신(吐故納新)으로 고객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하겠습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디자인 홍보팀(02-2112-7567) 제작·인쇄 네오메디아(02-512-1666)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January 2016

삼성KPMG 뉴스레터. 2016년 1월호(통권 제 156호) 월간

건강한 성장



[CEO 신년사 04](#)

2016년 CEO 신년사



[운영위원회 신년사 06](#)

2016년 운영위원회 신년사



[Team Spirit 08](#)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Client+ 10](#)

한국타이어



[Market Reader 12](#)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



[Excellence Report 14](#)

CEO COLUMN / ADVISORY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17](#)

사랑하는 삼성인을 칭찬합니다!



[원숭이띠 삼성인 18](#)

원숭이띠 삼성인이 추천하는 새해를 여는 책!



[행복한 삼성인 20](#)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삼성인의 행복 스토리!



[Purpose Story 22](#)

This is KPMG. This is Our Story.



[가자 세계로! 24](#)

작지만 강한 유럽의 관문, 네덜란드



[Samjong News 26](#)

삼성KPMG, Main Office 이전 외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며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갑시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丙)이 상징하는 색상은 붉은색, 신(申)이 상징하는 동물은 원숭이라 붉은 원숭이해라고도 불립니다. 원숭이처럼 슬기롭고 영민한 새해를 기원하며,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삼정KPMG는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수인재의 양성과 영입을 최우선 전략 과제로 삼고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Global Elite Program 운영 및 어학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Senior Manager 승진자 전원에게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회계법인 중 가장 많은 인원의 신입 회계사를 채용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에도 힘썼습니다.

삼정KPMG는 업계의 모범이 되고 시장을 바르게 이끄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를 출범하여, 감사위원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핸드북을 발간하는 등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한 해 삼정KPMG는 구성원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노를 저으며 행복한 항해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

세계 경제는 지금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2016년에도 모든 경제 주체들은 힘들고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삼정KPMG는 2016년에도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건강한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회계업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세월처럼 앞으로도 업계의 모범이 되고, 시장을 바르게 선도하는 법인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일의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느낄 때, 창조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는 곧 고객의 성장과 더 나은 사회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일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삼정KPMG는 새로 마련된 공간으로 Main Office를 이전하였습니다. 변화된 업무공간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각오로 신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풍장범(逆風張帆, 맞바람을 향해 돛을 편다)’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품은 계획대로 나아갑시다. 맹자(孟子)는 말했습니다. “길은 가까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쳐 버리는 것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일들도, 거북이처럼 느린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목표한 곳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올해에도 고객과 사회에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삼정KPMG의 여정에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삼정KPMG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소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정KPMG CEO 김교태



New Year's Message



Audit **서원정** 대표

지난 올미년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기업실적 악화에 대형 회계스캔들과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훼손시킨 몇몇 사건까지 겹쳐 회계업계가 풍랑 속의 조각배와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큰 위기 속에서 Frame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2016년 병신년은 우리 업계와 삼정KPMG 모두 혁신과 열정으로 우뚝서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삼정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 바랍니다.



Deal Advisory **신경섭** 대표

지난해 국내외로 어려운 환경에도 Deal Advisory는 Transformation 조직개편과 외부 우수 인력 영입을 통해 홀플러스 인수자문,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자문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해주신 DA 임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이 이제 막 시작했지만, 우리는 올해가 상당히 '다사다난'하리라 짐작합니다. 고착화된 불경기, 미국의 금리인상, 기록적인 저유가, 중국의 경기하락 등은 대한민국에 짐이 되고 있고,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의 시기에 삼정KPMG DA는 원숭이의 지혜와 진취성을 동원해 나라와 고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제적 사업재편, 사모펀드와의 협력, 해외진출 등 고객에게 당면한 과제를 미리 제안하고 해결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여러 고객들과 임직원 분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TAX **최정욱**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KPMG Tax'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경쟁환경에서 우리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멈추는 순간 후퇴합니다. 새해에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차가운 전망들이 많지만 우리의 '열정'과 지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전문가 조직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모두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CS **정대길** 부대표

삼정KPMG 식구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되어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한 걸음 성큼 다가서도록 우리 같이 손에 손잡고 같이 힘차게 달려 보십시오! 2016년 새해는 날마다 새로운 웃음과 행복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삼정KPMG 식구들이 원하는 소망과 계획, 모두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BCS **배홍기** 부대표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를 희망에 부풀게 하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맞이하는 올해는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난 한 해 법인 차원에서 하나되는 BCS가 되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소통하고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2016년은 하나된 마음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더 크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삼성KPMG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COO **구승희** 부대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Purpose와 함께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삼성KPMG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새로운 1년을 맞이합니다. 2016년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조건일 것이나,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는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삼성KPMG 가족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삼성KPMG 파이팅!



Risk Management **신병일** 부대표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정말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회계업계에 대한 여러 Challenge에 대해 우리는 김교태 CEO를 중심으로 원칙대로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Higher Purpose, 즉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의 단어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전년도 보다 더 깊숙이 와 닿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전향적인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삼성KPMG 구성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BD&Markets **신경철** 전무

우리의 Vision, 'The Clear Choice'를 지향하며 지난 한 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삼성KPMG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6년은 Business Development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KPMG Way'와 함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삼성KPMG 모든 파트너들이 참여한 KPMG Way Workshop을 시작으로 우리 조직의 BD Culture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조직문화와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추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2016년 새해 'KPMG Way'를 통해 우리 법인과 구성원 모두 도약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KPMG, The Clear Choice!



감사위원회의 든든한 조력자!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KPMG Audit Committee Institute(이하 ACI)는 1999년에 창립되었으며, KPMG Network 38개국에서 운영 중인 Global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서 지난해 4월 한국에서도 설립됐다. ACI는 실용적인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감사위원, 사외이사, 기타 이사회 구성원 간 지식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감사위원회의 도입 시기와 그 역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9년 12월 상법 개정과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기업경영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상법상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인원의 2/3는 회사 외부의 독립성을

가진 사외이사로, 최소한 1인은 회계 및 재무 관련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이사회 하부위원회로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며,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를 통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감사위원회가 도입 취지대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경영의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의 개선 효과로 인해 기업 가치나 경영 성과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로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진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기업 가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 CLSA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감시(CG Watch)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조사에서 기업지배구조 6위를 차지한 이후 계속해서 순위가 추락해 아시아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감사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감사위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감사위원 구성이 특정 직업에 편향되어 집단사고를 하거나 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미흡해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곳이 많다. 무엇보다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는 이사가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참여형 이사회'가 아닌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자문과 감독에 치중하는 '감독형 이사회'로 운영된다.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내의 위원회이고 감사위원이 사외이사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감사위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 더 용이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감사위원회와 달리 해외 선진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재무감독에 대한 실무경험 위주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수동적으로 회의실에서 보고받는 것에서 벗어나 경영진의 대동 없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업을 이해하고 감사위원회 안전을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회계와 재무감독 업무는 이미 일상화(Practice routine)되어 사이버 보안(Cyber security)이나 리스크 감독 업무 등으로 담당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국내 현실과 많이 다르다.

특히, 해외 선진기업들은 법 개정 이전에 변화를 이끌어간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도 제정에 앞서 주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기업들의 선진사례가 반영된 결과이며 해외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삼정KPMG ACI,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정착 위해 감사위원회 적극 지원할 것”

최근 외감법 전부 개정안에서 국가적 과제인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동시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정KPMG는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정립 및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 4월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를 출범했다. 지난해, 첫 출범과 함께 삼정KPMG ACI는 두 개의 마일스톤(milestone)에 도달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6월에 개최된 'ACI 창립 기념 세미나'이다. 국내 우수 기업의 감사위원과 상임감사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교태 CEO,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 KPMG ACI Head인 Dennis Whalen, 회계학회장 권수영 교수, 삼정KPMG ACI 리더인 김유경 상무가 연사로 나서, 국내 감사위원회의 현황과 지향점을 확인했다. 또 다른 하나는 핸드북 발간이다. 국내 감사위원회체제의 도입은 십여 년 전이지만 현실에서는 감사위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5개월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ACI 핸드북을 발간했다. 관련 법규 및 해외 글로벌 사례 등을 수록했으며, 현재 주요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에게 배포 중이다.

2016년에도 삼정KPMG ACI는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낼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제2회 ACI 세미나'를 준비 중이며, 감사위원 간 교류 증진을 위해 산업별 Peer Exchange,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지원 요청 대응 및 핸드북 업

데이트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삼정KPMG ACI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될 때까지,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올바른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감사위원회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삼정KPMG는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의 운영 및 활동 등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종합 실무지침서, 감사위원회 핸드북(Audit Committee Handbook)을 발간했다. 핸드북은 ▲1장 기업지배구조 ▲2장 감사위원회의 제도 ▲3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4장 감사위원회의 활동 방안,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Contact Us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김유경 상무 (팀 리더)

Tel. 02-2112-0639

E-mail, youkyoungkim@kr.kpmg.com



전 세계 Driving Culture를 선도하는 Driving Emotion, 한국타이어

세계 경제 변화에 한발 앞선 도전을 거듭해온 글로벌 기업, 한국타이어.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혁신 의지로 한국타이어는 Leading Global Tire Company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 우리나라 최초의 타이어 전문 기업

한국타이어는 1941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타이어 전문 기업으로 지난 74년 동안 명실상부한 글로벌 타이어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전 세계 4개의 글로벌 지역본부와 30여 개의 해외지사, 7개의 생산시설, 5개의 R&D 센터를 통해 180여 개국에 타이어를 판매해 세계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7위, 생산량 기준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달성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기술의 리더십을 통한 글로벌 Top Tier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프리미엄 자동차 메이커에 신차용 타이어(OE: Original Equipment)를 공급하며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13년에는 국내 타이어 기업 최초로 독일 3대 명차 브랜드의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15년에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명차인 포르쉐에도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국내 타이어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한국타이어는 현재 전 세계 32개의 주요 완성차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포르쉐,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닛산, GM, 포드, 현대, 기아 등 세계 유수의 완성차 업체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초고성능 타이어(UHPT, Ultra High Performance Tire), 런플랫, 실가드 타이어 등 첨단 타이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프리미엄 자동차, 럭셔리 스포츠카, 럭셔리 SUV, 글로벌 트럭·버스 등 신차용 타이어 비즈니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도전과 혁신의 기업문화, Proactive Culture!

한국타이어는 도전과 혁신의 '프로액티브 컬처(Proactive Culture)'라는 고유의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 최상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프로액티브 리더(Proactive Leader)'와 함께 글로벌 Top Tier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매월 1회 금요일을 소통과 창의의 시간인 프로액티브 프라이데이(Proactive Friday)로 지정해 직원들이 하루 일과를 스스로 계획하고 각자의 시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업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업무 영역이나 분야와 상관없이 다방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도인 프로액티브 원 그랑프리(Proactive 1Grand Prix)를 통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며 회사 전반에 파격적인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직원



1. 한국타이어, 전국 사회복지기관 대상 타이어 나눔 사업 공모_타이어 교체 차량 /
2. 한국타이어 이미지

이 선수가 되는 가상의 레이싱 방식으로 진행되는 프로액티브 원 그랑프리는 2개월 단위로 대회별 우승자를 선발해 시상을 진행하며 리그 우승자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한 해 동안 프로액티브 리더십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성과를 낸 구성원을 선발하는 프로액티브 어워드(Proactive Awards)를 매년 연말에 개최하고 있다.

|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는 핵심 비즈니스 특성인 '이동성(Mobility)'을 반영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틱움버스 지원사업'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구성원들이 문화, 역사, 전통, 생태, 교육 등의 체험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동수단을 제공해주고 있다. 온라인사이트 '드림풀(www.dreamfull.or.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매달 30~35대의 버스를 지원해준다. 틱움버스 사업은 840여 개 사회복지기관의 약 2만 명 이상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이동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 차량 나눔'과 '타이어 나눔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까지 총 307대의 차량을 지원하고 9,252개 차량의 노후된 타이어를 교체하며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는 전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그라미 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최근 동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삼정 Insight>에 담고 있다. <Market Reader>에서는 최근 발간한 내용을 요약, 게재하고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도시와 도시의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전 세계 국가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을 맞이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구와 자본의 이동성(Mobility)은 더욱 향상되어 사람들은 삶의 여건이 좋은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은 사업이 유리한 곳으로 입주를 옮기고 있다. 이렇게 모여든 기업과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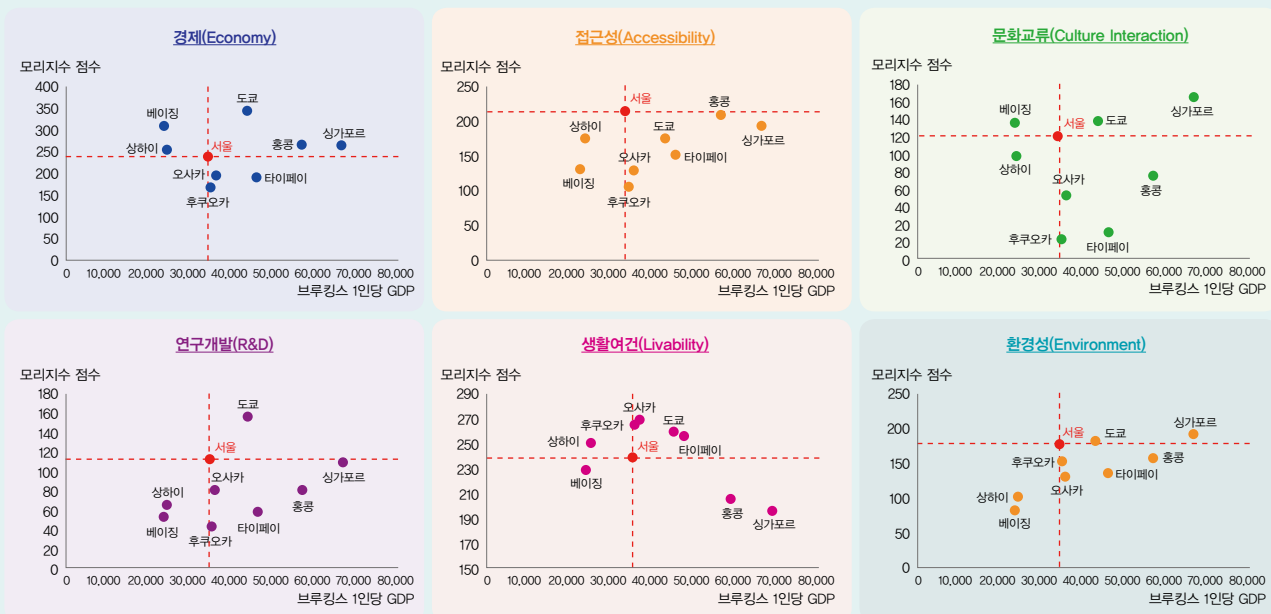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미처 준비가 안 된 도시들은 성장동력을 잃어 인구와 자본이 줄어들고 서서히 쇠퇴하여 이름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격언처럼 현재 글로벌 도시들의 경쟁적 상황과 경쟁우위 요소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미

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갖춰야 할 차별화된 경쟁력과 이 경쟁력에 기저가 되는 개념에 대해 분석했다.

글로벌 도시 경쟁상에서 서울이 현재는 6위, 그러나 ...

21세기 도시 대전(大戰)은 이미 시작됐다.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아시아 주요 도시의 분야별 경쟁력 비교



Source : Mori Memorial Foundation(MMF) <2015 Mori Index>, Brookings Institution <Global Metro Monitor>

은 이러한 도시 대전의 최대 격전지이자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각도에서 도시 경쟁력을 측정한 결과만 보더라도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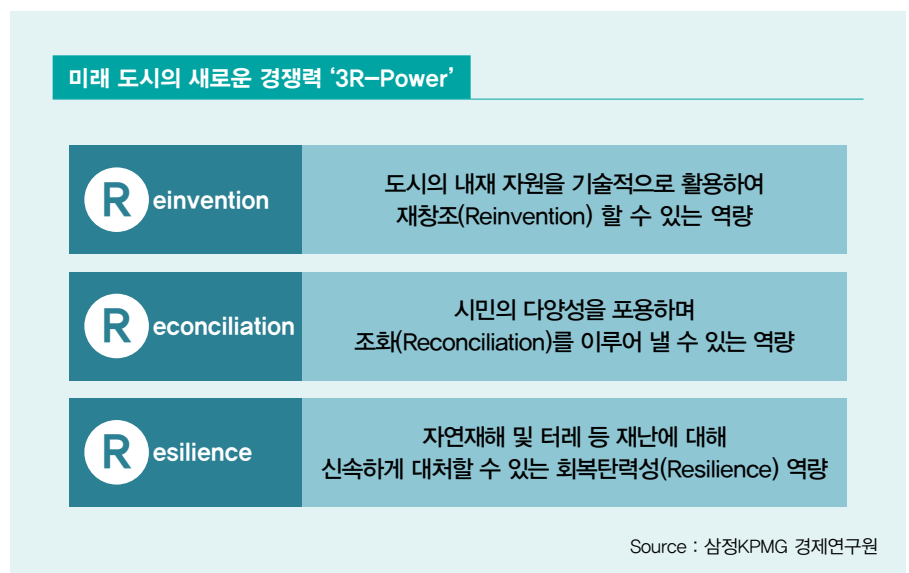
KPMG Global의 '도시의 경쟁력(Competitive Alternatives)'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와 도쿄는 최근 평가점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기업 입지 측면에 있어 매우 유리한 도시가 됐다. 글로벌 메트로 모니터(Global Metro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의 두바이는 2014년에 들어 과거 대비 228계단 평가순위가 상승한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도시 경쟁력을 측정하는 모리지수(Mori Index) 분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 미국의 보스턴은 11계단의 순위하락을 경험한 반면 한국의 서울은 현재 세계 6위이다. 그러나 도시 간의 경쟁을 통한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서 결코 서울도 현재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치열한 글로벌 도시 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국의 도시들도 충분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치열한 도시 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해법은 '차별화된 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차별화된 역량을 토대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재창조할 수 있다. 아울러 구성원의 조화를 바탕으로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가치유력을 바탕으로 내외부 충격에 대해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다.

미래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선 차별화된 경쟁력 필요해

미래 도시 대전 속에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중요시되던 비용적 측면(Cost Factor)을 넘어 비용외적 측면(Non Cost Factor) 즉, 도시 삶의 질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글로벌 도시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3R-Power'를 기반으로 한 질적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도시가 될 것이다.

도시의 미래 경쟁력인 '3R-Power'의 첫 번째로 Reinvention(재창조)를 들 수 있다. 재창조 역량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원들을 활용하여 이를 부가가치가 높은 요소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도시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변화들이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창조된 도시는 탈산업화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어버려 쇠퇴를 맞이하게 되는 운명을 거슬러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은 Reconciliation(조화)이다. 조화의 역량은 인종, 성별 문화 등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도시이다. 도시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하는 삶을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계층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능력이 차별 없이 수용되어 이를 도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가까운 미래의 도시들은 노년층 노동력의 효과적 인 흡수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R-Power에서 제안하는 미래 도시 경쟁력의 세 번째 개념은 Resilience(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자연재해 또는 테러 등과 같은 충격에 빠르게 대응하여 도시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된 미래 도시가 경험하게 될 내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이전에 비해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도시들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시의 회복탄력성 역량을 갖춰야 한다.

Contact U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승재 책임연구원
Tel. 02-2112-7088
E-mail. slee55@kr.kpmg.com



CEO COLUMN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기대하며



삼성KPMG CEO 김교태

기술의 발전, 인구 고령화,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미래 유망 산업에서 빠지지 않는 분야가 헬스케어 산업이다. 정부도 헬스케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는 병원, 의료기기, 제약, 바이오 등 매우 광범위하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병원이 있다. 우리나라 병원의 의료 수준은 해외환자가 찾아올 정도로 세계적이고(2009년 이후 2015년 5월 누적 해외환자 100만 명), 해외에서 병원을 지어줄 테니 운영만 해달라는 제안을 받는 병원도 많다. 하지만 병원 대상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경영시스템, 환자 전달 체계, 연구 산업화 체계 등 아직 아쉬운 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과거 많은 병원은 병상 증설과 의료진 확대, 마케팅 강화 등 외형 중심의 확장에 주안점을 뒀었다. 아울러 확대된 외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비효율을 줄이고 동일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가?'라는 효율성 확보에 집중했다. 하지만 기존의 비효율을 제거한 뒤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환자가 계속 오는 상황에서 기존의 의료서비스 패턴을 바꾸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메르스 이후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이 외형중심에서 가치중심으로(Volume to Value) 의료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적기이다.

의료서비스를 가치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대상을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간호사 등 내부 구성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병원들이 환자 위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부 구성원에 대한 관심은 적었고, 메르스 사태에서도 내부 구성원의 안전 면에서 미흡한 병원들이 있었다. 환자를 위해 내부 구성원의 안전이 희생되고 있다는 인식은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의료서비스의 퀄리티와 직결된 내부 구성원의 안전, 업무 만족도, 심리적인 안정 등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속한 치료에서 편안한 치유로 의료서비스의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대기 일수와 대기 시간의 단축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만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환자를 보겠다는 병원 관점의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빨리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즉,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치유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경험은 오감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유 환경의 구현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진료 체계와 시설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가치 중심으로 환자를 재구성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대상의 확대와 치유 환경의 구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익사업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병원의 비전에 부합하고 재무적 효과도 큰 환자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물론 병원별로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각각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환자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대상이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다.

병원은 가장 복잡한 조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있는 집단이다. 원활한 상호 소통이 어렵고, 부서 간 시너지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가치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더라도 모든 것을 일시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작게 시작해서 보완하고 확산하는 점진적 변화가 결국 혁신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이다. 그럼에도 그러한 혁신의 과정을 거쳐 많은 병원들이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에서 시너지를 이끌어 내고, 헬스케어 산업이 명실상부한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기고문은 2015년 11월 19일 자
조선비즈 '김교태의 경영산책' 코너에 게재되었습니다.〉

앞일을 헤아리고 준비하는 마음



삼정KPMG 재무자문 리더 **신경섭** 대표



논어 위령공 편에 등장하는 ‘원모심려(遠謀深慮)’는 ‘먼 앞일을 헤아리는 심오한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눈앞에 근심이 닥치게 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깊이 곰씹어봐야 할 한자성어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회복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중국 증시는 거침없는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원·달러 환율 역시 심상치 않다. 폭풍전야의 금융환경을 맞아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급격한 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거시환경은 금리 인상보다는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가계부채비율이 높아 금리상승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개발도상국의 달러가 유출되기 시작하면 금리의 향방은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따라서 기업의 부채비율을 조절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최근 시장의 유동성을 가장 많이 확보한 사모펀드와의 협력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국기업의 재무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급성장한 중국 경제가 성

장통을 겪을 때가 됐기 때문이다. 경기가 침체하면 호황기에 풀렸던 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금리 인상, 추가담보 등을 요청하기 마련이고 이는 기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중국 사업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이러한 중국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환율과 연동된 자산부채의 노출을 줄여야 한다. 과거 ‘키코(KIKO) 사태’의 아픔에서 보듯 환율변동에 따라 가치가 급변할 수 있는 항목, 특히 부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에 생산설비를 갖추고 현지통화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이들 통화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통화는 원화를 상대로 헤지(환손실 회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지통화로 조달한 부채만큼 현지통화 자산을 갖추는 자연 헤지(Natural Hedge)는 가능하다.

선제적인 구조조정도 중요하다. 최근 조선·해운·철강·플랜트·화학 등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아파트도 급매물로 내놓으면 가격을 깎아야 하듯 기업의 자산도 여유가 있을 때 유동화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의 뚜렷한 순환질서가 있어 천성적으로 겨울을 견디는 법을 알고 봄은 조바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소설가 박완서는 저서 『노란집』에서 한국의 저력을 이렇게 묘사했다. 대한민국이 앞일을 헤아리고 슬기롭게 대처해 다시 한 번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본 기고문은 2015년 9월 19일 자
서울경제 ‘투자의 창’ 코너에 기고 되었습니다.〉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원송이띠 삼정인

 행복한 삼정인

 Purpose Story

 가자 세계로!

 Samjong News

사랑하는 삼정인을 칭찬합니다!

박혜경 부장이 한대근 Manager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

칭찬주인공
IM2본부
한대근 Manager



“그 누구보다
법인 리쿠르팅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팀
박혜경 부장



안녕하세요, 인사팀 박혜경입니다.

법인 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이렇게

<CHANNEL>을 통해 칭찬을 받고 또

칭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김준태 회계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의 리쿠르팅 활동으로 알게 된 인연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되돌아보니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분 가운데, 법인 리쿠르팅 활동에 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한대근 Manager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대근 Manager를 처음 알게 된 건 2009년 신입 회계사 공채 때 제가 담당했던 학교의 Part time으로 입사하면서였습니다. 신입 회계사를 환영하는 식사 자리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당시 학생 신분으로 감사 피크시즌에 Part time으로 근무하고, 이후 이듬해 Full time으로 입사한 이후 Manager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리쿠르팅 TFT 총무로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후배들을 이기고 이끌어주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리쿠르팅 때에는 함께 면접관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면접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엄마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멀리서 보게 되더라도 늘 밝은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주니, 한대근 Manager를 마주치면 항상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알 수 없는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한대근 Manager에게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였던 <인턴>을 추천합니다. 하루하루 일에 쫓길 수밖에 없는 회사생활이지만, 그 속에서 진심이 통하는 동료들을 만나 서로에게 배움을 주고받는 훈훈함과 따듯함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대근 Manager에게 영화 <인턴>을 추천합니다!’



<인턴> 2015 / 코미디 / 감독 낸시 마이어스 / 출연 앤 해서웨이, 로버트 드 니로

영화 <인턴>은 30세 젊은 CEO가 운영하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 회사에 채용된 70세 인턴 사원의 유쾌한 근무일지를 그린 코미디 영화이다. <로 맨틱 홀리데이>,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등의 히트작들을 탄생시킨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지휘 아래 로버트 드 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열연을 펼쳤다.



원숭이띠 삼정인이 추천하는 병신년(丙申年) 새해를 여는 책!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을 맞아 원숭이띠 삼정인들에게 새해를 시작할 때 읽기 좋은 책을 추천받았다.
이들이 추천한 책을 읽으며 힘찬 새해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M, 토게이어 저)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유대인의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지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재주 많고 영리한 동물인 원숭이해를 맞이하여, 저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영내 전무 (B&F3본부)

“사람은 때로 외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모르면 삶이 무디어져요. 하지만 외로움에 갇혀 있으면 침체되지요. 외로움은 옆구리로 스쳐가는 마른 바람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바람을 쏘이면 사람이 맑아집니다.” 추천 책은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법정, 최인호 저)입니다. 바쁜 삶을 사는 삼정인들에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저자의 대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에너지가 다 소진된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제 자신만의 치타델레(Zitadelle)로 잠시 피신하여 심신의 에너지를 보충하고 싶습니다.

주민영 S.Manager (Deal Advisory4본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를 추천합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항상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때로는 첫사랑의 기억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상실의 시대) 때로는 오이디푸스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긴 여행을 떠나기도(해변의 카프카) 합니다. 이 책에서는 과거의 친구들에게로 여행을 떠나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들 바쁘고 힘들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와 함께 자신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상현 S.Manager (DPP본부)



‘믿고 읽는’ 정유정 작가의 여행에세이 『히말라야 환상방향』을 추천합니다. 『28』 탈고 후 슬럼프에 빠진 정유정 작가가 다시 용기를 얻기 위해 선택한 안나푸르나 등반 여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2016년은 원숭이띠 해이기도 하고, 삼정KPMG에 입사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무슨 일이든 용기 있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송혜선 차장 (인사팀)

제가 추천하는 책은 고가 후미타케의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베스트셀러라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 심리학이 쉽게 와 닿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책을 읽는 동안 잊고 지냈던 제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원숭이띠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삼정인 모두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황혜진 Manager (MCS1본부)



저는 『꾸삐씨의 행복여행』(프랑수아 를로르 저)을 추천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행복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2016년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광윤 Associate (B&F3본부)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책은 송홍빙의 『화폐전쟁』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은행과 돈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놔서 잘 읽히고, 또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돈, 금리, 통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띠를 맞아 올해는 원숭이처럼 똑똑하게 일하는 회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윤세희 Pooling Associate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삼성인의 행복 스토리!



삼삼오오 모여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보내다!

CEO님과 영국 파견자들이 함께한 행복한 시간!

배세윤 S.Manager (FS Banking Audit, London)

CEO님과 런던 파견자들,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파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국 음식을 즐기며 각자 느낀 영국 문화 및 생활 등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CEO님의 파견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경험을 쌓아, 법인에 더욱 기여해야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CEO님의 다정함을 느낄 수 있었고 파견자들과 우애를 다질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선배님들과 함께 연말을 훈훈하고 즐겁게

유별 Associate (B&F2본부)

삼삼오오 프로그램 덕분에 제 사회생활 첫 직장 선배님들인 두 분 회계사님들과 연말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 기말에 IM2본부에서 여러 지역 출장을 다니며 계속 붙어 다니다, 이제 세 명 모두 다른 부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와 함께 얼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급&본부는 달라도 취미가 같은 우리들!

이동원 Pooling Associate

우리들은 서로 간의 직급 및 본부가 제각기 다르지만,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취미(운동)가 비슷하여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로 근무 중인 본부의 성격 및 업무 이야기 이외에도 사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며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삼삼오오로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법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정인들이 동료들과 우애를 다지고,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행복한 스토리를 보내왔다. 법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타 본부원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가족에게 그간 전하지 못한 감사의 선물을 전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다!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해 드리는 생신 선물!

피영 S.Manager (IA/FR본부)

‘부모님을 뵙니다’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사내에 있는 교포들도 해당이 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계신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 미국에 있으며, 저는 혼자 한국에서 지내 1년에 한 번, 구정 때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한국에서 지내기 전에는 매주 뵙고, 생신 등 주요 가족 행사를 장남인 제가 챙겨 드렸지만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후 해드릴 수 없어 마음이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모님을 뵙니다’를 통해 과일바구니를 보내드렸는데요, 한국에서 보낸 선물을 받은 부모님께서 무척 신기해하시며 힘든 이민 생활에 활력이 되었고, 기억에 남을 생신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행복해하시니 저도 무척 좋았습니다. 많은 삼정인들도 ‘부모님을 뵙니다’를 통해 부모님의 일상에 행복을 더해 드리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며,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우흥제 S.Senior (Domestic Tax2본부)

바쁜 일정 속에서 어느 때와 같이 메일을 정리하는 도중 삼정KPMG Benefits Program에 대한 메일을 보고 ‘부모님을 뵙니다’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충주라는 작은 도시에 거주하고 계셔서 이런저런 핑계로 주로 명절에만 뵙다 보니, 부모님의 대소사는 아들로써 못 챙겨드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부모님을 뵙니다’는 오랜만에 가족 이벤트를 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과일바구니도 보내드리고, 가족 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 모두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응원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저도 뿌듯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법인의 Benefits Program을 접할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앞장서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KPMG. This is Our Story.

KPMG는 그동안 강조해온 Purpose, Vision, Value, Strategy 등을 포괄하여 'The KPMG Story'를 제시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 16만2천여 KPMG 구성원 모두가 '우리의 일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 것인지', '고객과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호에서는 'The KPMG Story'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The KPMG Story는 우리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ic)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The KPMG Story의 5가지 항목을 아래의 그림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일상에서의 우리 행동과 중요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될 것이다.



Our Purpose

'KPMG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KPMG에서 일하고 있는가?' 'KPMG의 구성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

가?' '나의 업무는 왜 중요한 것인가?' Purpose는 Why에 대한 것이다. 이 Why에 대한 대답은 우리 조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그리고 커뮤니티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 우리는 KPMG의 역사와 설립 정신에 대해 연구했고, 많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며, 그 이야기들을 연구하고 종합하여 KPMG의 Purpose로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를 도출했다. Purpose는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을 넘어 사회와 세상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소명에 더욱 집중하게 한다. 또한 Purpose는 우리의 고객에게 Purpose가 이끄는 윤리적인 조직, KPMG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킬 것이다.

Our Values

Our Value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 155개국에 걸쳐 16만2천 명의 구성원들이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즉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행동양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Our Value이다.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의 이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업무와 생활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KPMG가 전 세계에 일관된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Our Vision

Our Vision은 '우리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KPMG Story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의 목표는 Professional services firm으로서 'the Biggest'가 아니라 'the Best'가 되는 것, 바로 'The Clear Choice'가 되는 것이다. 'The Clear Choice'가 되기 위해서는 탁월성(Our people have to be extraordinary), 한 차원 높은 고객 감동(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when they work with us), 사회로부터의 신뢰(The public trusts us)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Our Strategy

Our Strategy는 Quality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Excellent Client Service를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KPMG만의 브랜드를 구축해가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둔다. 우리는 Multi disciplinary firm으로서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협업하고, 협력해야 한다. New Normal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현재를 넘어서는 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하며 우선순위를 달성해 나갈 때, 우리의 비전인 'The Clear Choice'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 고객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 표준화된 방식의 핵심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Quality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우리의 전략은 고객에게 집중할 때 달성된다. 우리는 항상 고객을 이야기하

며, '고객 중심'이 전략의 핵심이다. 인재들을 배치하여 세계의 각 고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공공의 신뢰를 확립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가 Global KPMG로서 성공할 수 없다면 Local member firm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Local member firm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KPMG로서 'Globally The Clear Choice'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Our Promise

우리가 Purpose를 추구하고, Value를 실천하며, 전략을 충실히 실행할 때, 우리의 Vision인 'The Clear Choice'를 달성하고 우리의 고객, 구성원 및 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Promise는 사회, 우리의 커뮤니티가 KPMG에 대해 떠올렸을 때, 'KPMG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는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답이다.

우리는 KPMG가 Professional 조직으로서 다음과 같이 보이기를 원한다.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네덜란드 Korea Desk 박우성 Director

작지만 강한 유럽의 관문, 네덜란드

〈가자 세계로!〉에서는 전 세계 30여 개국의 Korea Desk에 파견 근무 중인 삼성인을 만나, 그 나라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엿본다. 이번 호에서는 풍차와 튜립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 네덜란드에 대한 모든 것을 박우성 Director가 소개한다.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홀란드’(Holland), ‘화란’이라고도 불리는 네덜란드의 정식 국명은 네덜란드 왕국 (Kingdom of the Netherlands)으로 유럽 북서부에 영국과 마주 보고 벨기에와 독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약 20%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풍차, 운하, 튜립, 치즈, 고흐 등으로 널

리 알려진 네덜란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1인당 GDP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보다 높은 부강한 나라이며, 한때 세계 제일의 무역국답게 교역액 기준으로 세계 5위권의 무역대국입니다. Heineken, Philips, Unilever, ABN AMRO, ING Group, Royal Dutch Shell, Booking.com, ASML 등 다양한 산업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네덜란드의 주요 기업들이며, 유럽 최대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로테르담항과 화물 수송량

기준 유럽 3위의 스키폴 국제공항을 위시한 우수한 물류 인프라, 효율적 세관 시스템, 기업 친화적 조세제도, 합리적 이민제도, 유럽 국가 중 최고의 외국어 구사능력 등 유럽진출의 관문으로서 경쟁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약 500여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유럽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KPMG의 Global headquarter 또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텔베인(Amstelveen) 오피스입니다.

| KPMG the Netherlands

우리나라와 달리 전국에 비교적 고루 퍼져있는 네덜란드 기업들을 따라 KPMG 네덜란드 역시 네덜란드 전역에 걸쳐 12개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PMG 네덜란드에는 총 약 3,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계법인(KPMG Accountants N.V.)과 세무법인(KPMG Meijburg & Co)이 별도의 KPMG 멤버펌으로서 각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orea Desk는 KPMG 네덜란드의 주사무소인 암스텔베인 오피스에서 네덜란드 주재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잦은 탓에 KPMG 네덜란드에서는 회계감사, 세무신고 및 자문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법인(또는 지점) 설립, 주재원 이민절차와 같이 외국기업의 진출과 관련된 전문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크지 않은 규모로 진출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장대리, 급여계산 등 빈번하게 아웃소싱되는 업무들도 다수의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Work&life in the Netherlands

과거 짧은 여행을 통해서만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막연한 문화 차이들도 업무와 생활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노동환경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몇 차례 소개됐지만 네덜란드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평균 근로시간이 우리나라의 약 60% 수준입니다.

또한, 네덜란드 근로자들은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Full time 근무자를 기준으로 보통 25일에서 30일가량의 휴가(법정 최소

휴가 일수는 20일)를 부여받아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름 휴가시즌과 크리스마스부터 연말을 전후한 기간에 장기간 휴가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휴가시즌에는 세무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도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 휴가를 몰아 5~6주간 여름 휴가를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에는 거래처, 자문사,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곤 합니다.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도 업무상 답답했던 적이 많았으나 이는 네덜란드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동환경 차이의 연장선상에서 네덜란드에서는 비즈니스와 관련해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이러한 식사자리를 업무로 받아들이며, 특별한 이벤트가 있거나 사전에 초대하지 않은 이상 현지 동료, 거래처 또는 고객사 현지 직원과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끝나면 일찍 퇴근해 가정으로 돌아가 개인 시간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와 시간약속 관념이 철저한 네덜란드인들의 성향상 특히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저녁식사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현지인을 상대로 한 관계 형성은 우리나라 문화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 역시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다르다’는 말의 이면에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간략히 소개한 노동환경을 비롯해 자연, 문화, 제도, 국민성 등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와 많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네덜란드의 저력과 경쟁력을 볼 수 있는 면들도 있지만, 반대로 새삼 부각되는(네덜란드보다는 훨씬 크지만) 역시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과 경쟁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

니다. 특히, 비즈니스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토록 빠른 시간에 지금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동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력을 발판으로 앞으로도 세계 무대로 성장해 나아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삼정KPMG와 네덜란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KPMG Korea Desk가 어디에서나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Contact Us

네덜란드 Korea Desk
박우성 Director
Tel.
+31206 567233
E-mail.
Park.Woosung@kpmg.nl



1. 암스테르담의 야경 / 2. KPMG 네덜란드 암스텔베인 오피스(Global headquarter) / 3. 현지 감사고객 재무담당자들과 함께한 모습 / 4. 본부원들과 함께하는 생일파티 / 5. 네덜란드 잔센스칸에서 가족과 함께



NEWS

SPECIAL NEWS

삼성KPMG, Main Office 이전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 출발 각오 다져

삼성KPMG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성장과 발전을 이룬 강남파이낸스센터(GFC) 10층에서 새로이 단장된 27층으로 Main Office를 이전, 지난해 12월 4일 오픈식을 가졌다.

오픈식에는 삼성KPMG의 김교태 CEO를 비롯해 고문단 및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테이프 커팅식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원제 등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오픈한 Main Office는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담은 심플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단장했다. 무엇보다 회의실, 교육장, 휴게실 명칭을 임직원의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을 반영하도록 공모전을 진행해 선정했다. 일주일의 짧은 공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가와 도시, 별자리, 십이간지, 철학자, 한국문화재 등 임직원 100여 명의 다양하고 재치 있는 의견들이 수렴됐다. 그 중 삼성KPMG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 서비스, 이념 등을 담은 ▲술선 ▲협업 ▲열정 ▲존중 ▲통찰 ▲소통 ▲신뢰 ▲혁신 ▲정직 ▲공헌 ▲Purpose ▲비전으로 공용 회의실명이 선정됐다. 교육장은 우리나라 대표 학자들의 호를 인용해 ▲세종(Sejong) ▲율곡(Yulgok) ▲다산(Dasan)으로, 임직원의 휴게실은 힐링 분위기가 느껴지는 ▲하늘(Sky) ▲바다(Ocean) ▲숲(Forest)으로 새 이름을 얻었다.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임직원들에게는 오픈식 현장에서 상금을 수여했다.

Main Office 오픈식에서 삼성KPMG 김교태 CEO는 “삼성KPMG는 새로이 단장된 Main Office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2016년을 맞이하고, 나아가 새로운 성장의 향후 15년을 대비하고자 한다. 새 출발을 시작하며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그리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 공간에서 새 출발을 시작한 삼성KPMG가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바람으로 고객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을 기대해본다.



1. 삼성KPMG Main Office 로비 전경 / 2. Main Office 이전 기념 테이프 커팅식 / 3. KPMG 후원 프로골퍼 필 미켈슨의 모습을 담은 '열정' 회의실 / 4. 바다처럼 탁 트인 임직원들의 휴게 공간, Ocean Lounge (GFC 10층) / 5. 삼성KPMG의 미래를 그려나갈 Purpose, 비전 회의실 / 6. 임직원들의 쉼과 여유를 위한 힐링 공간, Sky Lounge (GFC 27층)



MONTHLY NEWS

Business Development 활성화 위한 'KPMG Way Workshop' 개최

삼정KPMG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 양재동 The-K 호텔에서 'KPMG Way Workshop'을 개최했다. KPMG Way는 KPMG Global 이 각 member firm의 Business Development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Workshop에서는 삼정KPMG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Workshop에는 삼정KPMG의 김교태 CEO와 운영위원, 본부장 등 주요 파트너들과 더불어 KPMG ASPAC의 Head of Markets 제프 윌슨(Geoff Wilson) 등이 참석해 열린 토론의 장을 펼쳤다. 총 7개의 그룹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결과를 발표하여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김교태 CEO는 "Workshop을 통해 법인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법인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KPMG Way 정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삼정KPMG BCS-HCG, 'HR Analytics 세미나' 개최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삼정KPMG 'HR Analytics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HR Analytics 소개와 함께 System Dynamics를 활용한 전략적 인적자원 계획, Social Network Analysis를 활용한 경력경로(CDP) 사례, Key Word 기반 조직 이미지 분석 사례, Nvivo를 활용한 직원인식 조사(질적 데이터) 분석 등 기업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 Contact : BCS-HCG 이승철 상무이사
seoungcheolllee@kr.kpmg.com

'2015 삼정KPMG 제약·바이오 세미나' 열려

삼정KPMG의 IM1, IGH본부는 지난해 12월 10일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제약·바이오업계의 생존전략'라는 주제로 '2015 제약·바이오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살펴보고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글로벌 지원정책은 무엇인지, 더불어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 Contact : IM1본부 유기석 부대표 kyou@kr.kpmg.com/
IGH본부 공영칠 전무이사 ykong@kr.kpmg.com

'연말정산 세미나'로 연말정산 실무 새로운 가이드 제시

지난해 12월 11일, 삼정KPMG 교육장에서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2015년 연말정산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사항 및 소득, 세액공제 항목은 물론, 까다로운 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개정세법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Contact : ATO본부 김의성 전무이사 ukim@kr.kpmg.com

삼정KPMG, 강남구청 주관 '제1회 지방세 우수납세자상' 수상

삼정KPMG는 지난해 12월 15일 강남구청에서 주관한 '제1회 지방세 우수납세자상'을 수상했다. 강남구청은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삼정KPMG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IM2본부 이동영 이사, 수협중앙회에 표창장 수여 받아

지난해 12월 31일, 삼정KPMG IM2본부 이동영 이사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에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일선수협 통합전산망(Badaro 시스템) 구축 PI(Process Innovation)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방법서의 정의 및 현행화를 이끌고,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됐다.



삼정KPMG, 사회공헌으로 이웃사랑 실천

상록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



삼정KPMG는 연말을 맞아 상록보육원 아이들과 따뜻한 추억 만들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12월 4일, 보육원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찾아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12월 16일에는 임직원들이 직접 상록보육원을 찾아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의 귀여운 장기자랑 시간과 함께 임직원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엘사로, 또 꾸민 선물도 전해줄 산타클로스로 분장하여 기쁨과 선물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보냈다.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 나눔 전개



삼정KPMG 임직원들은 지난해 12월 9일,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80여 명의 임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며,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작은 나눔이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삼정KPMG는 매년 2회에 걸쳐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단체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헌혈 운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2016년 삼정KPMG 사랑나눔 일정

1월	16일	제과제빵 봉사 (봉천, 신설)
	23일	사랑의 밥상 (충정로)
2월	13일	국수 봉사 (신설동)
3월	12일	제과제빵 봉사 (봉천, 신설)
	26일	사랑의 밥상 (충정로)
4월	9일	나무 심기 행사
	23일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봉사
	30일	사랑의 밥상 (충정로)
5월	11일	상반기 헌혈 봉사
	21일	사랑의 밥상 (충정로)
6월	11일	국수 봉사 (신설동)
	17일	해비타트 주거 환경 개선
	25일	사랑의 밥상 (충정로)
7월	9일	제과제빵 봉사 (봉천, 신설)

7월	23일	사랑의 밥상 (충정로)
8월	10일	부모님 직장체험
	27일	사랑의 밥상 (충정로)
9월	10일	제과제빵 봉사 (봉천, 신설)
	24일	사랑의 밥상 (충정로)
10월	22일	사랑의 걷기대회
	29일	사랑의 밥상 (충정로)
11월	5일	사랑의 김장나눔
	12일	제과제빵 봉사 (봉천, 신설)
	18일	희망의 연탄나눔
	26일	사랑의 밥상 (충정로)
12월	2일	상록보육원 나들이
	7일	하반기 헌혈 봉사
	10일	국수 봉사 (신설동)
	14일	상록보육원 크리스마스파티

* 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삼정KPMG 신년 시무식 열어, 丙申年 힘찬 새 출발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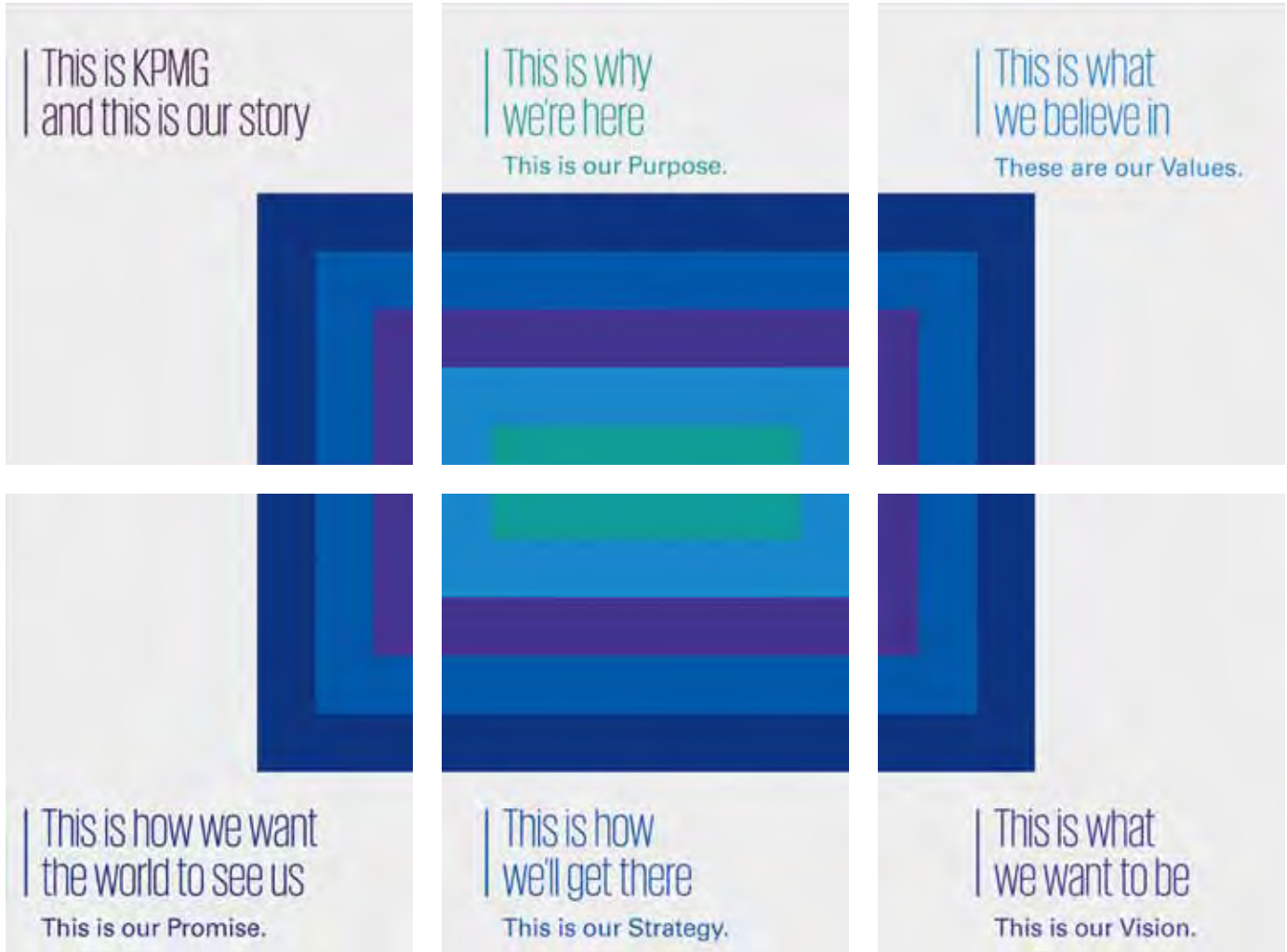
삼정KPMG는 1월 4일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Main Office에서 2016년 시무식을 열었다. 이날 시무식에는 삼정KPMG 파트너들과 고문단 등이 참석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열정과 도전으로 서로 협력하여 2016년을 함께 걸어나갈 동료들과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시무식의 첫 순서로 법인이 걸어온 2015년의 주요 행사들을 동영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성장해나갈 삼정KPMG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교태 CEO는 “2015년에도 법인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삼정KPMG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2016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갖추고, 고객 니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올 한 해도 법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갑시다.”라며 삼정KPMG 가족들과 丙申年, 법인의 새로운 목표를 다짐했다.

삼정KPMG 구내식당, 동원홈푸드 손 잡고 ‘정원’으로 새 단장!

삼정KPMG가 1월 5일, 구내식당 ‘정원’ 오픈식을 가졌다. 오픈식 현장에는 삼정KPMG 김교태 CEO와 구내식당을 책임져줄 동원홈푸드 신영수 CEO 등이 참석해, 축하를 나눴다. 새 단장된 정원은 삼정의 ‘정’과 동원의 ‘원’에서 이름을 가져왔으며, 임직원들이 집밥같은 음식을 나누며,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집안의 꽃과 뜰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정원’을 뜻하기도 한다. 정원은 깔끔한 인테리어는 물론, 전자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임직원들이 선호하는 맛과 메뉴가 식단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매일 식단에 맞는 다양한 후식이 마련되고, 매월 2회의 특별한 식단이 준비돼 임직원들의 맛과 건강을 책임질 계획이다.



우리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y)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The KPMG Story!



삼정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